

IT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개선방안

송학현* · 최세하** · 이명길*** · 김윤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강원대학교, ***대덕대학교, ****목원대학교 IT 공학부

A Study on Government R&D Subsidies for the IT Small and Medium Enterprise

Hag-hyun Song* · Se-ha Choi** · Myong-kil Lee*** · Yoon-ho Kim****

* IITA, ** Kangwon Univ, *** Daeduk College, **** Mokwon Univ

e-mail : hhsong@iita.re.kr

요 약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 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개발 부진과 제 독려, 자금 부당집행 등 위반사항 적발·제재, 지급집행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관심의 부족, 내·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등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져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등의 여지를 줄이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1. 서 론

80년대의 태동기를 시작으로 90년대와 2000년대의 성장 및 도약기를 맞고있는 IT분야는 우리나라가 국제수준에 가장 근접한 산업분야로 그 동안 정부의 역할과 향후 지원에 있어서도 정부, 기업, 학교나 전문연구소 등의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1]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기획경제 중심의 산업화를 이루었는데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나름대로 정부의 정책기획과 투자재원조성 및 지원의 힘이 컸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전지역에 1가구 1대 이상의 전화보급을 실현하는데 기여한 전자교환기(TDX)개발을 비롯하여 비메모리반도체산업 육성, CDMA 이동통신기술의 상용화,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세계최고 인터넷 사용국가 건설 등으로 말미암아 산업화에는 서구국가들에 비해 뒤졌지만 정보화만큼은 세계수준에서 뒤지지 않는 견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정보통신분야의 견실한 성장은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시행했던 정책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산

업화가 대기업 위주의 재벌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중심이었다면 정보통신정책은 기술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90년대초에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치중하다가 점진적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II. 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하여 정보화 촉진 및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기반조성 및 투융자사업 등이다. 2002년도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세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및 사업환경 악화 등 수요증가에 비해 공급능력의 과대 확장으로 2001년에

는 반도체를 비롯한 IT산업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2002년에도 미국 테러의 여파 등으로 세계시장 전망은 불투명하여 자체적인 투자 및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및 연구개발 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중국 등 후발국의 급부상으로 기존 경쟁력의 급격한 위축위험에 노출되어 세계 일류기술을 적극 창출하고, 새로운 경쟁원천을 확보하지 않으면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상실할 위기에 있으며 글로벌화의 진전과 기술 의존성 증대에 따라 기술 일등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연구개발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효율의 극대화의 필요성을 들고 있다.[2]

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출연, 투·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서도 적시하고 있듯이 IT산업은 벤처기업이 성장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서, 기술력을 핵심역량으로 하는 벤처기업이 고부가가치 창출과 신기술 개발·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002년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기금결산보고자료에 의하면 투융자 및 출연으로 지원하는 사업규모는 1조 5천억원이다.[3]

최근 4년간 기금의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계획)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융자사업	399,629	6	331,355	△17	556,649	68	564,000	1
출연사업	908,504	77	761,024	△16	1,472,656	94	1,144,928	△22
투자사업	-	-	5,000	-	185,000	3,600	45,000	△76
기금관리비	751	△5	844	12	984	17	1,024	4
재특차입금 이자상환	12,674	120	21,730	71	21,429	△1	31,240	46
재특차입금 원금상환	-	-	17,984	-	29,651	65	146,982	396
공자기금 예탁	440,000	△31	330,000	△25	838,400	154	700,000	△17
사업 대기자금 등	792,172	48	1,153,619	46	1,032,852	△10	36,161	△96
합 계	2,553,730	23	2,621,556	3	4,137,621	58	2,669,335	△35

출연사업 중 중소벤처기업이 주로 수혜대상인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과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의 경우

는 매년 4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산업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사업
지원대상	산업체(중소·벤처 중심)	개인 및 창업초기 중소기업
지원규모(2002)	400억원	100억원
과제당 지원한도	10억원(총연구개발비의 50%)	1.5억원(H/W), 1억원(S/W)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수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6월	합계
○ 신청과제수	.	.	.	452	718	1,862	594	3,631
○ 선정과제수	.	.	.	167	175	361	100	803
○ 선정율	.	.	.	37%	24%	19%	17%	22%

※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은 99년도부터 실시됨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지원과제수

구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합계
○ 신청기술수	303	315	279	407	622	1,222	448	3596
○ 선정기술수	48	47	55	99	79	85	48	461
○ 선정율(%)	16%	15%	20%	24%	13%	7%	11%	13%

○ 최근 3년간 집행실적

구분	1999			2000			2001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
산업기술개발	300	300	.	300	300	.	1,300	1,300	.
우수신기술 지정·지원	100	100	.	100	100	.	100	100	.

III. 정부자금 지원업체 실태조사

중소벤처 비리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자들의 도덕성 등이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2001년도 산업기술/우수신기술지정·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한 423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 실태를 조사하였다.

기술개발 진행상황 및 연구비 집행실태를 실시하여 기술개발 부진과제 독려, 자금 목적외 사용 등 위반 사항 적발·제재, 자금집행 방법 교육 등을 통해 집행의 적정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으로 장비 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기술전문가를 연계한 기술상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발성공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조사진행은 정부의 전수실태조사 지침에 따라 세부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ETRI의 중소기업애로기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는데 2001-1차 사업수행 업체 163개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414명(IITA:251명, ETRI:163명)을 투입하여 1차 현장방문 조사, 2차로 내원조사 및 현장방문 정밀조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기업체 관계자 교육을 지원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1-2차 사업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260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방식 및 조사표 방식 개선 등 세부계획을 보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자유공모과제는 ETRI 직원과 공동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정 공모과제는 기술부분은 방문조사, 연구비집행은 내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총대상과제 423개 과제중 적정 과제 400개(95%), 자진포기 13개(3%), 부적정 과제 10개(2%)로 나타났다.

○ 조사기간, 투입 입력 및 대상과제수

구분	조사 기간		투입인력	대상 과제수	
	1차	2차		계	우수신기술
2001-1차 사업	1차	2002.3.18~2002.4.16 (29일간)	326명	163	121
	2차	2002.4.30~2002.5.20 (21일간)	88명		42
2001-2차 사업	2002.6.18~2002.7.29 (42일간)		520명	260	218
					42

- 산업기술개발사업

구 분	대상과제수	적 정	자진포기	부적정(제재)
2001-1차	121	116 (96%)	1 (1%)	4 (3%)
2001-2차	218	201 (92%)	12 (5%)	5 (3%)
합 계	339	317 (93%)	13 (4%)	9 (3%)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대상과제금액	적 정	자진포기	부적정(제재)
2001-1차	230	217 (94%)	2 (1%)	11 (5%)
2001-2차	452	416 (92%)	24 (5%)	12 (3%)
합 계	682	633 (93%)	26 (4%)	23 (3%)

-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구 분	대상과제수	적 정	자진포기	부적정(제재)
2001-1차	42	41 (98%)	-	1 (2%)
2001-2차	42	42 (100%)	-	-
합 계	84	83 (99%)	-	1 (1%)

<지원금액>

(단위:억원)

구 분	대상과제금액	적 정	자진포기	부적정(제재)
2001-1차	46	44.5 (97%)	-	1.5 (3%)
2001-2차	49.5	49.5 (100%)	-	-
합 계	95.5	94 (98%)	-	1.5 (2%)

IV. IT 중소벤처기업 지원 개선방안

정보통신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지원사업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회계에 관한 지식·관심의 부족, 내·외부 감사시스템 미비, 자금 애로 등의 사유로 출연연구소 등에 비해 연구비 집행 증빙 등 회계처리에 미숙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연구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집행관련 사항을 간소화·투명화하여 연구비 부당 집행, 집행 오류 등의 여지를 줄이는 한편, 관리여력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직접비 중 여비, 수수료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등 3개 항목의 경우 ①계수조정항목으로 활용되어 과다 계상, ②연구목적과의 적합성 심사가 곤란, ③소액 현금 형태로 집행되어 실제 집행여부 확인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3개 항목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업체에서 자기 부담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기업체 자율

에 의해 연구목적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추진하도록 하고, 적합성 심사, 집행 확인 등과 관련한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정부 출연비용을 “총연구개발비의 50%”에서 “주요 연구비 합계액의 50%”로 축소하여야 한다.

현재는 연구개발한 기술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의 2%를 매년 기술료로 징수(매출정율기술료제)하는데 매년 기업의 매출내역 신고를 바탕으로 관리기관이 심사 후 기술료 납부 규모 결정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으나 불성실 신고, 적정성 심사 곤란, 기술료 사정에 대한 기업의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종료과제 결과평가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경우)을 대상으로 정부출연금의 30%(대기업은 50%)를 5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는 출연정율 기술료제 도입이 필요하다.

과제관리시스템으로는 현재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과제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지원내역, 제재현황 등에 관한 DB 등 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다. 회계지원기능을 수행하는 Web 기반의 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체들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집행내역을 입력하고 집행관련 증빙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의적인 연구비 변경, 중

비 목	내 용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작품제작비, 여비, 수용료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위탁연구개발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 ” 표기항목은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우수사업에서는 불인정
 ※ 주요 연구비 : 인건비, 직접비(여비, 수용료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연구홍보비 제외), 위탁연구개발비(간접비 제외)

빙서류 미비 등을 통제하고 연구비 카드제와 연계하여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점검 강화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 되었는데 연구비 항목 간소화, Web 기반의 과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관리여력을 활용하여 현장 점검활동 강화하고 수행관리 전담인력(4-5인)을 확보하여 과제 수행 중에 업체별로 2회 이상 실태 점검 추진하고 과제수행관리 강화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여야 한다.[4]

2001. 12.

[3]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기금결산보고서 국회 2002.6.

[4] 중소기업출연사업개선방안 정보통신부 2002.6.

[5] 국가과학기술조사분석평가자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 5.

V. 결 론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기업의 영세성과 무경험성, 기술중심적인 경영과 국내 편향적인 경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5]

연구비지원항목 조정, 출연정율기술료제로 변경, Web기반과제관리 및 현장실태조사 강화 등이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항목의 세분화 등 실태조사방법을 보완하고, 수행관리 전담인력 확보 추진 실태조사자의 수시 교육 실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공정성 부여 등이다.

참고문헌

[1] 2002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기본계획 정보통신부 2001.12.

[2] 2002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 시행계획 정보통신부